

회의자료

2024년 4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목 차

I. 한돈산업 현황 및 활동사항	3
1. 22대 총선 한돈산업 정책 건의	3
2. ASF 소득안정비용 감액 규정 철회	4
3. 지자체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관련 조례 안내	5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비화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응	6
5. 네덜란드 양돈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7
6. 양돈장 화재 발생 주의 및 예방 점검사항 안내	9
7. 양돈장 질식 재해공간 작업 안전수칙 안내	10
8. ASF 발생현황 안내 및 대응경과	11
9. PED 예방 홍보 안내	14
- 붙임 -	
○ 돼지 수급 동향(3월 4주차)	16

I. 한돈산업 현황 및 활동사항

1 22대 총선 한돈산업 정책 건의

제안 배경

- 국내 한돈산업은 농축수산물 중 가장 비중* 있고, 국민들의 육류 섭취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식량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 23년 기준 농업, 축산, 수산업 중 생산액 1위
- 그러나,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동물복지, 대체육 확대, 사료값 폭등 등 새로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이에, 농축수산업 중 대표산업인 한돈산업이 ESG를 실천하고, 소비자와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돈산업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제안 내용

- ‘한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을 22대 총선 핵심 정책으로 반영

◇ 주요 내용

▲ESG 경영 실천(냄새없는 스마트팜 축사로 전환, 탄소중립 실천 등) ▲생산자 경영 안정 ▲소비자 신뢰 제고 ▲지역사회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기술혁신 ▲생산자 역할 강화 6대 가치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미래전략 반영

6대 목표	현 재	미 래
ESG 경영	국민들에게 냄새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	→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될 존경받는 한돈인
경영안정	경영불안으로 지속가능한 양돈업에 대한 불안감	→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경영손실 보장제도 도입
소비자만족	품질보다 생산성 위주로 소비자 외면	→ 수입육 차별, 다양한 고품질
동반성장	한돈 전·후방 산업과의 협력 없이는 경쟁력 한계	→ 전·후방 산업 소통, 현안 공동 대응
기술혁신	농업 생산액 1위 품목 새로운 변화 필요	→ 미래 첨단 핵심산업 성장 기반 구축
생산자 역할 강화	先 정부 규제 後 대응하는 농민단체 성격	→ 선제적 정책 제안하는 이익단체로의 전환

◇ 연차별 소요 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계
기존	6380.4	6377.4	6377.9	6377.9	6377.9	6377.9	6377.9	6377.9	6377.9	6377.9	63,781
신규	780	772	770	770	770	660	660	610	610	610	7,012
계	7,160.4	7,149.4	7,147.9	7,147.9	7,147.9	7,037.9	7,037.9	6,987.9	6,987.9	6,987.9	70,793

가. 현황

-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고시제정(안)* 의견조회(' 24.2.28~3.8)
 - (지원대상)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 (지원피해) ①과체중 발생, ②자돈폐사, ③지정 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등(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지침 시달)

나. 문제점

- 지원대상 농가가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등을 위반시 소득안정비용을 20% 감액하여 지원한다는 상한액 기준 신설

다. 조치결과

- 한돈협회, 지원금 감액 기준 반대의견 제출 및 농식품부 미팅 등
- 농식품부, 한돈협회가 제시한 수정안 반영 계획(감액기준 삭제)

개정안	수정안
재5조(지원금 상한액 등) ①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명령 또는 반출제한 명령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17조의6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득안정비용 지원 확정 금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재5조(지원금 상한액 등) ①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명령 또는 반출제한 명령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삭제 >

3

지자체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관련 조례 안내

가. 현황 및 배경

- 최근 일부지역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의 운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축분뇨 위탁처리비용이 상승되어 농가의 경영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 조례로 한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로인해 한돈농가 가축분뇨 처리비용 비용 절감.

나. 지자체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지원 및 조례 현황

- 지자체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지원 조례

구분	주요 내용
<괴산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 부서	• 농업건설국 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
운영현황	<지자체 자원화 지원 부문> -공동자원화시설에 연 2억원의 가축분뇨수거사업의 명목으로 지원 -2016년까지는 축산농가에 분뇨수거 비용 톤당 10,000원 지원 -2016년 이후에는 '가축분뇨수거사업' 명목으로 공동자원화시설에 직접 지원 -연 2억원(분뇨수거 10,000원/톤, 20,000톤) * <근거법령>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시행규칙
<함양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 부서	• 농업건설국 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
운영현황	<지자체 자원화 지원 부문> - 축산농가에 분뇨수거비 보조 및 톱밥 연 2억원 지원 - 한돈협회 함양지부를 통해 축산농가에 분뇨수거 비용 톤당 10,000원 지원 / 연 10,000톤 / 연 1억원 지원 - 한돈협회 함양지부를 통해 축산농가에 톱밥 50,000톤 지원 / 2,000원/톤 / 연 1억원 지원 *<근거 법령>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순창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 부서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운영현황	<지자체 자원화 지원 부문> - 순창군 내 액비유통센터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비용 연2억원 지원 *사업량 8,000톤 / 지원단가 : 25,000원/톤 *<근거 법령> 순창군 축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가. 현황 및 배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1)으로 암모니아 배출기준 적용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포함*

* 배출방지시설 설치 + 배출 허용기준 의무 준수 → (위반시) 최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단협은 환경부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적용대상 유예, 방지시설 지원 및 방지 시설 표준 정보제공을 약속 받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12.28) : 공동자원화 24년 12월말 까지, 민간 퇴비장 25년 12월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암모니아 기준 적용 유예

-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민관협의회에서 약속하였던 시설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하여 현장의 시설등은 시설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환경부에선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나 현장의 적용 가능성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나. 대응 현황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대응방향 논의

-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환경부 건의

다. 향후 대처 방안

- 방지시설 설비를 위한 충분한 이행기간 요청

- 연구용역결과등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설비를 할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요청

5 청년분과위 네덜란드 양돈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4. 3. 13(수), 11:00 ~ 16:30 / 천안상록리조트

나. 참석자 : 전국 청년한돈인 및 관계자 총 206명 참석

다. 목적 : 전국 청년한돈인을 대상으로 양돈선진국인 네덜란드 양돈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한돈산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자 함.

라. 세미나 주요 사진



마. 세미나 주요 내용

1) 24년도 한돈산업 정책방향 - 농식품부 이재승 사무관

-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산업발전 위한 정책 소개
-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및 에코피드 활용
- 유통업체에 농가로부터 구매한 가격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중에 있음
- 스마트 축산 확산 지원 및 환경 관리 강화를 통한 악취 저감
-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강구

2) 한돈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서 - 세종대 민승규 석좌교수

- 한돈의 품질 경쟁력 향상 추구해야 할 시점. 생산성 제고, 고기 품질 다양화 등 경쟁력 찾기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삼겹살에 대한 남다른 가치 부여, 다양화, 명품화 등 색다른 접근이 필요
- 한돈이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유럽과 네덜란드 양돈산업 최신 동향과 과제 - 로버트 호스테 교수

- (현황) MSY31두, 비육돈 사료요구율 2.5, 농가수 3,200 농가, 총 1,090 만두 사육, 자급율 300%
 - 초과 부분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 가족농 중심, 1명 내외 고용하고 있음. 관리자 기술 수준 높고, 인건비 비쌈.
 - 농장 인력 1인당 모돈 300두 정도를 관리하고 있음.
- 농장 규모화 및 농장수 감소, 환경(분뇨)문제로 사육마릿수 확대 금지. 동물복지도 점차 강화중(임신돈 군사, 분만틀 확장 등)
- (시사점) ①인적 기술의 숙련도에 집중 ②데이터 및 기술 활용의 중요성 ③생산성 지표 개선에 노력 ④ 사료 효율성 증대 노력 필요, 원료 다각화 노력 필요
- 데이터 기반 기록관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 필요

4) 고병원성 PRRS, PED 차단방역 대책 - 이승윤 대표

- 데이터 기반 기록관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노력 필요
 - 신속한 진단과 초기 대응이 중요
- (PRRS 예방) 백신교차접종(북미, 유럽형) 금지, 돈군폐쇄와 후보돈 교배 중단 → 안정화 후, 후보돈 교체 실시
- (PED 예방) 접촉감염으로 장화 교체 필수, 인공감염 실시(믹서기로 감염체 분쇄 후 급여 → 총 4번 급여 핵심

24년 초부터(1~3월) 양돈장 화재가 총 54건 발생하여 23년 대비(1~3월 18건) 화재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화재는 큰 재산피해로 이어짐으로 한돈농가분들께서는 화재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1. 발생현황(3/29 기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54건 발생(1월 17건, 2월 22건, 3월 15건) / 23년(1~12월) 총 97건 발생
 - 도별 발생건수: 강원(4), 경기(12), 경남(4), 경북(9), 전남(3), 전북(7), 충남(9), 충북(2), 제주(4)

2. 주요발생원인

- 전기적 원인 > 원인 미상 > 산소절단기 > 기타(방화)

3. 양돈장 화재 예방 점검사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원인인 먼지와 이물질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셉트, 분전반, 모터 등에 쌓인 먼지를 깨끗이 제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된 전선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된 전선이 없는지 확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입구 배선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입선, 연접인입선 외부 노출 및 꼬임 점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콘센트 사용법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초과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느슨하게 연결된 플러그는 화재의 원인이 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기 주변에 가연성 물질 두지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시설 주변 쓰레기 소각 및 가연성 물질 보관을 금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내 소화기 구비 및 정기적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사별 소화기 구비 및 정기교육을 실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온등, 누전차단기 등 주기적 전기 안전 점검 실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 사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 주기적 실시



양돈장 질식 재해 공간 작업 안전수칙

1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방법
재해자 구조 및 응급 처치 방법
※ 실제 작업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2 출입금지 표지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출입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설치
안전장비 목록 - 가스농도측정기
- 환기팬



3 유해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실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황화수소 10ppm미만, 산소 18~23.5%)
작업전, 작업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배기는 작업공간 깊숙이 위치



4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 및 연락할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한돈자조금

※ 한돈농가 질식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자료 활용(지부알림사항에 게시)

- 파일 경로 : 한돈협회 홈페이지 → 지부알림사항

가. 양돈장 ASF 발생현황

○ 총 40건 / 24년도 2건 발생(1.16, 1.18), 23년도 10건 발생(1.6~9.25)

- (23년) 포천 5건, 김포 1건, 철원 2건, 화천 1건, 양양 1건
- (24년) 파주 1건, 영덕 1건

년 도	경기					강원										경북	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포천	철원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양구	양양	춘천	영덕		
19	5	2	2	5		-	-	-	-	-	-	-	-	-	-	-	14
20	-	-	-	-		-	2	-	-	-	-	-	-	-	-	-	2
21	-	-	-	-		-	-	1	1	2	1	-	-	-	-	-	5
22	1	-	1	-		1	-	-	-	-	1	1		2	-	-	7
23	-	-	1	-	5	2	1	-	-	-	-	-	1	-	-	-	10
24	1(1.18)	-	-	-	-	-	-	-	-	-	-	-	-	-	-	1(1.16)	2
계	7	2	4	5	5	3	3	1	1	2	2	1	1	2	1	40	

○ 대응경과

1) 역학농장 출하 건의 및 해소 (SOP 개정 반영)

- 도축장 역학(7일), 농장역학(14일), 방역대(21일) 출하

2) 1유형 농가 역학 우선 제외 지원

- SOP에 따라 1유형 농가의 경우 차량 및 사람이 진입하지 않았으므로 역학 사유 미발생

3) 도축장 역학 농가 지정도축장 확대 요청

- 기존 4개 지정 도축장(안동축산물공판장, 소백산 한우, 고령공판장, 민속엘피씨)
→ 3개 지정도축장 추가(구미칠곡축협, 삼세, 경진산업)

4) 농장역학 및 방역대 농가 출하 일령 단축 건의

- 농장역학 : 14일 → 설명절 고려하여 1~2일이라도 단축 요청
- 방역대 : 21일 → 14일로 단축

- 5) 파주 공동처리장(2개소) 이동제한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해소 건의 등
- 6) 도축장 출하시 생축 운반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 이용 제외

나.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및 대응

○ 야생멧돼지 ASF 발생건수 : 3,885건(42개 시군, 4.1 기준)

□ (현황) '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최초 발생한 이후, '24년 3월 현재 42개 시군에서 총 3,831건 발생

※ (24년) 1월 9일 경북 의성군에서 신규 (42번째)로 발생

□ (추이) 19년 북서부 접경지역(연천, 철원 등) 발생 → 20년 강원 북부 중심 발생 → 21년 강원 전역 및 충북 북부(단양, 제천)로 확산 → 22년 충북 및 경북 확산 → 23~24년 경북 중심으로 확산, 부산 신규 발생

※ 경기 674, 강원 1905, 충북 472, 경북 814, 부산 20

○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지속 요구) 야생멧돼지 75% 개체수 저감, 서식 밀도 0.7/km² 유지

○ 야생멧돼지 확산 저지를 위한 포획비용 지원 사업 (23년 사업)

- ① 남한강 이남(5개 시군) : 양평, 여주, 이천, 음성, 괴산
- ② 보은·상주 이남(4개 시군) : 옥천, 영동, 무주, 김천
- ③ 서식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연천·화천 등 접경지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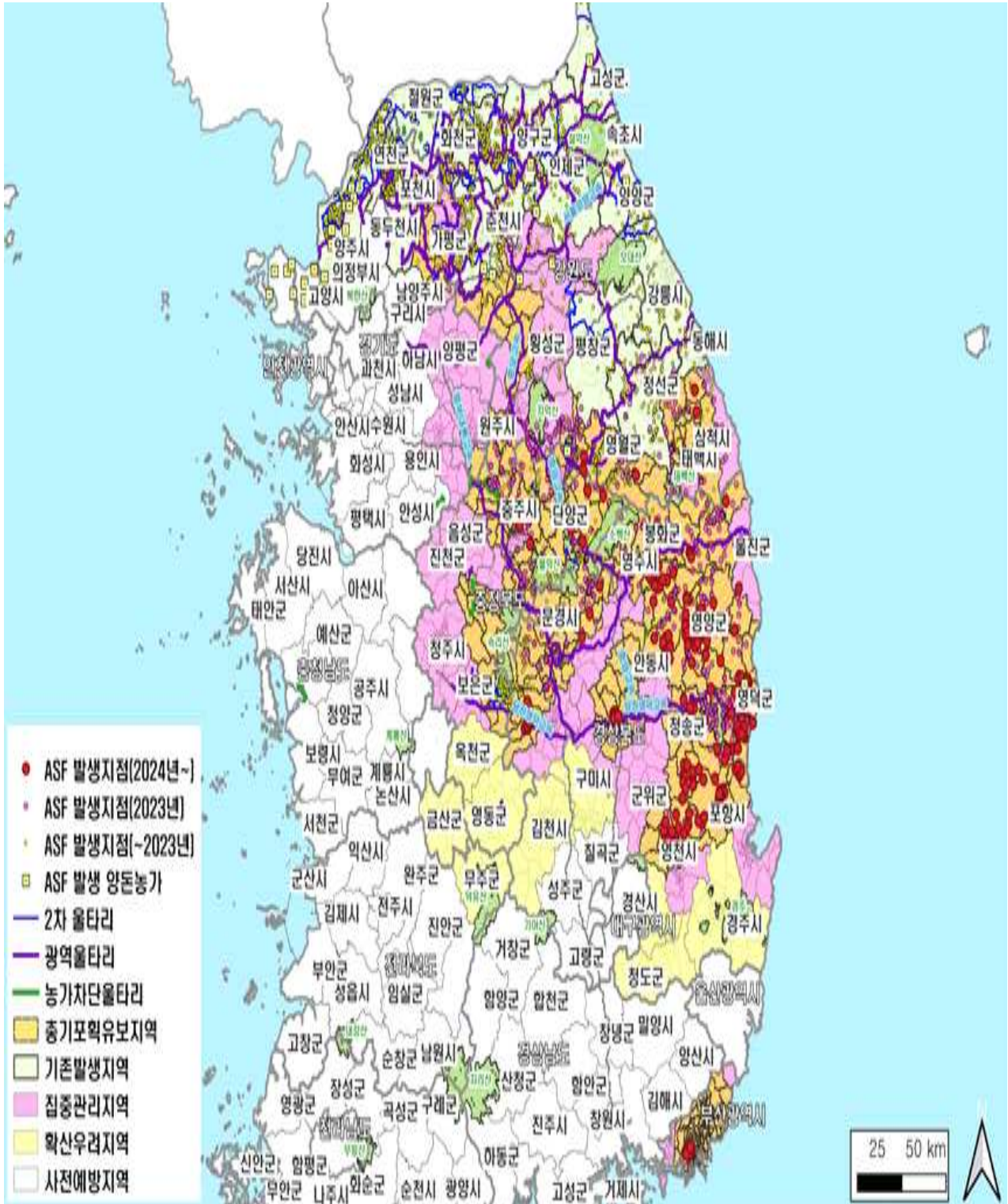
○ 사업포획단 운영 사업 진행 (23년 사업)

- 포획단 운영 :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인근 지역(청송, 김천, 옥천, 영동)

*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23년 한돈자조금 지원, 전년말 3,371여 마리 포획

참고

야생멧돼지 ASF 검출 현황 3,885건(42개 시군, 4.1기준)



□ 돼지유행성설사병(PED:Porcine Epidemic Diarrhea)이란?

- 주로 어린 자돈에서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포유 자돈은 탈수로 인해 대부분 폐사하고, 이유자돈은 회복 후 체중이 감소하여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성 질병(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뇨 등에 의해 입으로 감염되며, 축사 위생관리가 어려운 겨울철(1~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 2024. 4월 현재 전국에서 방역당국에 신고된 수치로만 58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해 200건 이상 신고되었던 2018년도, 2022년도를 웃도는 피해 규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동향 >

<연도별 PED 발생현황>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4
발생건수	94	83	101	221	138	45	40	230	102	58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할 경우 돼지에서 방어항체가 형성되어 PED를 예방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22.10)에 따르면, 모든의 방어항체 보유율은 전국 평균 26.1%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22년 시도별 PED 방어항체 보유율 현황>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방어항체율(%)	26.7	13.3	35.0	27.7	44.4	26.4	19.4	29.3	15.4

* 21년 PED 방어항체 보유율은 14.4%

- 전국 모든에서의 낮은 방어항체율 수준을 고려할 때, 유행 위험이 높아 농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PED도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차단방역 시설 설치 및 운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돼지유행성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방역시설 설치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돼지유행성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단방역 시설 만큼은 완벽히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 해야하며 소독절차를 지켜야합니다.
 - (차량) 1유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철저히 지킬 것
 - (사람) 외부인은 물론, 특히 농장 주 출입시 반드시 소독절차를 지킬 것
- 돼지유행성설사병의 가장 주된 전파 요인은 돼지 입식이며, 이어 도축장 및 분뇨처리 차량이 위험요소이고, 관련 종사자(농장 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출입 차량 운전자 등) 및 각종 출입 차량들이 전파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어 농장 내 철저한 방역과 통제를 요합니다.

2. 올바른 백신 사용

- 백신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서에 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 생백신을 경구 또는 근육 접종하고, 이어 돼지유행성설사병 사독백신을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백신 접종은 항체가를 높게 유지시켜 PED 재감염을 예방하고, 혹시라도 PED가 발생한다 하여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모돈에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타입에 적합한 타입으로(G2b)으로 제조된 PED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한 경우 빠른 안정화를 위해 인공감염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공감염은 농장 전체의 지속적인 재발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농장 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수의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주차 돼지 수급 동향

◆ 주간 경락가격 (3/25 ~ 3/29)

구분		3월25일	3월26일	3월27일	3월28일	3월29일	한주평균	전주평균	전년동기	전주대비
전국 (제주 제외)	가격(원)	4,973	4,932	4,851	4,792	4,557	4,853	5,051	4,919	-198 (3.9▼)
	두수(두)	2,186	1,884	2,045	2,083	962	1,832	1,714	1,927	118 (6.9▲)
제주	가격(원)	4,935	4,821	4,911	5,009	5,119	4,951	4,959	5,943	-8 (0.2▼)
	두수(두)	1,213	1,154	1,063	1,176	851	1,091	1,145	888	-54 (4.7▼)
돼지 도축두수		82,864	78,896	80,935	74,691	70,625	77,602	79,151	74,539	-1,549 (2.0▼)

◆ 돼지 도축두수(두)

'23.1~12월	'24.2월	3월1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 합계	연간 누적
18,688,699	1,576,491	405,575	403,547	395,757	388,011	1,592,890	5,005,174

◆ 2023년, 2024년 월별 출하두수(천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3	1,529	1,613	1,688	1,464	1,553	1,494	1,363	1,480	1,433	1,672	1,774	1,626	18,689
2024	1,827	1,576	1,593										5,005
차이	298	-37	-95										

◆ 돼지고기 수입량(톤)

구분	'23.1~12월	'24.2월	3월1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 합계	연간 누적
전체	402,915	39,990	9,982	12,297	9,320	15,081	46,680	127,018
삼겹살 (냉장)	177,481 (22,561)	14,053 (1,855)	3,721 (502)	4,864 (409)	2,969 (159)	5,749 (478)	17,303 (1,548)	46,518 (5,110)

